

● 발표 주제

자율주행 개발 현황 및 전략

Current Status and Strategy on Developing Driving Automation



권형근

Hyoung-Geun Kwon

현대자동차

실장/자율주행개발실

kwonhg@hyundai.com

Professional Career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 고속도로/도심 자율주행 시범운행 (2018 평창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 도심 주/야간 자율주행 (2017 CES)
- 친환경차 기반 자율주행 (2016 CES)

● 발표초록

기존의 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함으로 운전자는 주행에 책임을 지고 운전 집중해야 했으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차가 운전을 대신하여 운전자는 주행 중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교통약자에 이동성 제공 및 공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통해 더욱 안전하며,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도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고자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2020년 이후 SAE 기준 레벨4 상용화가 예상되는 시장 전망 속에서,

당사는 2010년 대학생 대상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주최하고, 2015년 서울 실도로 자율주행을 시연, 친환경차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세계 최초 선보인 2016 북미 CES, 도심 주야간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인 2017 북미 CES 및 자체 개발 수소차를 이용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의 약 200km의 고속도로 및 올림픽 경기장 주변 도심도로 자율주행 시연과 대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사 자체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개발 경험과, '지능형 안전 차량'(Intelligent Safety Vehicle)이라는 개발 철학을 바탕으로 1) 보편적 안전, 2) 선택적 편의, 3) 궁극의 이동성을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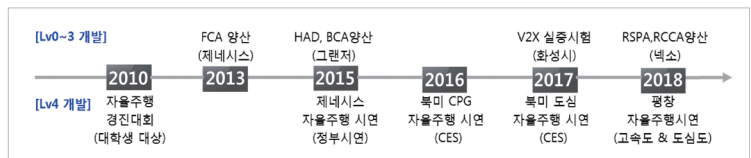


그림 1. 자율주행 기술 개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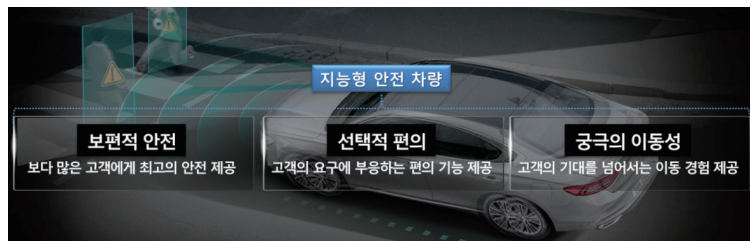


그림 2. 지능형 안전 차량 개발 철학